

‘세상의 다른 곳’ 베네치아를 추억하다

글 · 사진 정동헌

인생이 허기질 땐 여행을 떠났다. 괴테도 그랬다. 그는 37세 생일 축하 파티 중 새벽에 마차를 타고 홀찍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괴테는 어릴 적부터 동경했던 이탈리아로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다. 살면서 들었던 흥미진진한 세상 이야기의 절반 이상은 이탈리아 베네치아(Venezia)였으니 그곳은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였다. 코로나19로 세계의 하늘길을 막힌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짊어졌던 베네치아 하루 여행은 더없이 짙은 그리움으로 남았다. 분주하게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네치아에 다녀와서야 알게 됐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건 팬데믹이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매년 조금씩 가라앉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기 시작한 막연한 걱정이 결국은 여행으로 이어졌다.

■ 흑사병과 살루테 성당

육지와 베네치아 섬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륙교인 '자유 의 다리'(Ponte della Libertà)를 건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섬 주위로 세워진 수많은 말뚝이다. 118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약 400개의 다리로 연결된 베네치아. 석호(潟湖)에 수백만 개의 말뚝을 박아서 세운 베네치아는 567년 훈족의 침략을 피해 개펄 위에 건설한 수상 도시다. 이곳 사람들은 베네치아를 '세상의 다른 곳'(Alter Mundi)이라 부른다.

수상버스인 바포레토를 타고 산자카리아 선착장으로 향하다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만났다. 베네치아 본섬을 역 S자형으로 흐르는 대운하 끝자락에 웅장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베네치아는 중국과의 무역 길인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다. 14세기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과 군인들은 흑사병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흑사병은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해양 대국 베네치아에서도 인구 절반이 죽어가는 커다란 질병이 됐다. 베네치아는 흑사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성모 마리아에게 성당을 지어 봉헌하기로 하고 살루테 성당을 지었다.

전염병에 대한 일차적 방역 수단은 격리다. 당시 베네치아에 도착한 무역선 승객들은 40일간 배에 머문 뒤 항구에 내려야 했다. 검역의 퀴런틴(Quaran tine)은 이탈리아어로 '40'에서 유래됐다. 역사는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반복된다.

■ 베니스 영화제를 떠올리며

본섬 선착장에 도착하면 멋진 아치형 다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두칼레궁전의 재판소와 피온비 감옥을 연결하는 '탄식의 다리'다. 예쁜 다리 모양과는 다르게 탄식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기 때문이다. '이성을 유혹하는 이단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체포됐던 카사노바가 감옥으로 향하며 이 다리를 건넜다. 그는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탄식해야 했다.

- 1 선착장에서 바라본 본섬 전경. 살루테 성당(왼쪽)과 광장 종탑(오른쪽)이 보인다.
- 2 베네치아의 자유를 위해 외세와 맞서 싸운 여인의 동상
- 3 베네치아 옛 모습을 그린 지도





1



- 1 두칼레 궁전 앞 산 마르코 소광장
- 2 '탄식의 다리'는 궁전과 감옥(오른쪽)을 연결한다.
- 3 가면축제는 베네치아 카니발을 대표한다.



2



3

서기 828년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가의 시신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예수의 제자 마가의 시신을 훔쳐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그들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으로 만들고 싶었다. 성 마가는 마르코라 불렸고, 마르코는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성 마가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산 마르코 대성당을 지었고 이곳 광장의 이름은 산 마르코 광장이 됐다.

날개 달린 사자상과 수호성인 성 테오도르 동상이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을 지나면 두칼레궁전과 산 마르코 도서관 사이에 작은 광장 피아제타(Piazzetta)가 나온다. 이곳은 산 마르코 광장과 연결되는 희극 공연의 무대다. 베니스(Venice)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에 주어지는 '황금사자상'의 로고는 바로 이곳에 있는 날개 달린 사자상에서 따온 것이다. 영화제의 붉은 카펫을 밟고 들어가는 주인공처럼 광장으로 들어갔다.

이탈리아어로 광장을 '피아차'(Piazza)라고 하는데 베네치아의 수많은 광장중에서 피아차라고 불리는 건 산 마르코 광장뿐이다. 광장은 화려하고 커다란 야외 연회장이다. 플로리안, 콰드리, 라벤나, 그랑카페라는 이름의 카페 4곳이 있다. 나 폴레옹은 이곳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했다. 카사노바는 아무도 탈옥할 수 없다는 피온비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후, 플로리안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카사노바에게 에스프레소는 자유와 안도의 맛이었을 것이다.

카니발이 허락한 달콤함

미로와 같은 베네치아의 골목길. 자동차가 없는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타고 건물 사이의 물길을 따라가는 것은 역사를 따라가는 길이다. 흔들리는 곤돌라에 몸을 맡기고 운하를 따라 지어진 저택을 구경하는 것은 중세 베네치아의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좁은 수로를 따라가다 보면 담벼락에 작은 명패 하나 걸린 집이 있다.



1 곤돌라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교통수단이다. 2 성 마르코의 유해가 안치된 산 마르코 대성당
3 무어인 상이 매시간 종을 치는 산 마르코 시계탑

베네치아가 낳은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햇살 좋은 2월의 어느 날. 베네치아는 중세시대의 모습 그대로다.

매년 2월 사순절에 열리는 베네치아 카니발은 가면무도회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날이 축제가 시작하는 날이라 산 마르코 광장에는 적지 않은 현지인들이 가면을 쓰고 관광객들을 반겨준다. 가면무도회의 시작은 종탑에서 천사의 모습을 한 프리마돈나가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남녀, 빈부, 계급의 차이가 없는 베네치아의 카니발은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친한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난 듯 포옹하고, 팔짱 끼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가면을 쓰고 광장에서 만난 관광객들과 하나가 된다.

베네치아 골목에선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헤매는 재미가 쏠쏠하다. 빵집 마요르에서 프리텔레(Frittelle)를 맛본다. 프리텔레는 카니발 축제 기간에만 먹을 수 있는 전통 간식이다. 쫄깃한 도넛에 슈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들어있다. 입안 가득히, 축제가 허락한 달콤함에 빠져본다.

■ '거기 가봤나?'

작가 토마스 만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서 베네치아를 '아양 떠는 수상적인 미녀 같은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울아매는 덫 같기도 했다'고 표현했다. 베네치아가 지금 날 울아매고 있다.



베네치아를 여행하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Charlotte)를 사랑한 롯데 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묘비명이 떠올랐다. 부산발 지모네세키행 연락선을 타고 고향을 떠난 신격호는 일본에서 풍선껌으로 롯데 왕국을 이뤘지만, 그는 계속 샤롯데를 찾았다. 괴테가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바라본 베네치아에서 샤롯데를 사랑한 문학청년 신격호의 묘역에 적힌 글을 되새겨 본다.

‘거기 가봤나?’

여행은 가슴을 뛰게 한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



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한 시인의 말이 생각난다.

책상에 앉아 여행 기념품으로 가지고 온 베네치아의 곤돌라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머지않아 다시 시작될 여행을 준비한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들으며 인생의 허기를 달랜다.

‘하염없는 내 눈물 뺨 위를 흐르네, 나는 너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잊었던 사랑이 물밀듯이 다가와 느끼는 순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무래도 ‘세상의 다른 곳’ 베네치아로 다시 가야겠다. ♡